선민이 은총을 살릴 때와 죽일 때

(시편 149:1~9)

5.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6.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7.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8.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9.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선민이 은총을 살릴 때와 죽일 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선민이 은총을 살릴 때와 죽일 때'
선민이 선민답지 못하면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선민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을 입에 담아 부르는 교인을 선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이 아닌 종교학자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겉으로 드러난 기준으로는 이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 부르는 선민의 삶이 이방인과 같다면 죄가 됩니다. '이방인과 같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가 같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같다'라는 것은 기쁨의 이유가 같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같다'라는 것은 그 기쁨을 똑같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선민의 죄는 더욱 큽니다. 이방인의 죄가 10이라면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선민의 죄는 20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허락하신 모든 특권적 은총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을 죽이고 무효화시킨 죄가 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사건으로부터 시작해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지평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직접 선민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기록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과 말씀을 주셨으며 결정적으로 성전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특권적 은총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언약해주셨습니다. 성전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가치관이 똑같고 삶의 방식과 태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총을 선민이 무효화시켜버리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선민은 곧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은총의 본래 효과를 활성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돈으로 기뻐할 때에 똑같이 돈으로 기뻐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총을 죽인 증거입니다. 이방인들은 자녀의 형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선민이 그들과 똑같이 자녀의 형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죽인 증거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선민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일까요?
자녀가 형통하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형통함으로 인해 자녀가 교만해질 것을 걱정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할까 자신의 능력으로 형통을 이룬 것처럼 여길까 걱정할 것입니다. 선민들에 대한 모세의 걱정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풍족하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닌 스스로 쟁취한 것으로 여길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민은 돈을 벌어도 돈이 나를 위해 쓰일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방인들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 중에서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이방인과 완전히 똑같아진 이들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감사헌금을 좀 많이 내며 티를 낼 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죽이며 이방인과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 선민에게는 이방인보다도 더욱더 비참한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죽인 죗값이 더해진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은총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은총을 죽이는 죄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선민이 악기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창조주와 왕 되심을 기념하고 또 역사상 많은 원수들로 수난을 당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음을 감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절박함이 숨어있습니다.

시편을 끝내는 단계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졌던 것과 같은 절박한 심정을 담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함을 누릴 때에 결코 그것을 스스로 얻은 것이라 생각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라는 당부를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러한 절박한 심정의 당부가 담겨있는데, 교회사 속에서 많은 오해를 받아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의 승리를 위한 군가로서 해석되어 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하반부를 보면 그렇게 해석된 이유가 드러납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을 쥘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어서 7~9절을 보면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한다'라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 전쟁에 패배한 후에 눈이 뽑혔듯이 패배한 자들에게 치욕적 상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전 2세기 마카비 시대에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유린하고 모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였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이 노래를 그때에 불렀으리라 해석했습니다. 또한 독일을 중심으로 신교와 구교가 다투는 30년 전쟁에서 이 시편을 사용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편에 섰던 제후들이 신교제후들과 전쟁에 나갈 때에 군가로 삼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에 급진주의자였던 토마스 뮌처가 보복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본 시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시는 선민 대 이방인 혹은 선민 안에서 벌어진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군가로 사용될 만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선민의 선민다움을 촉구하는 노래이며 선민답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비참한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 왕국 유다가 망할 때의 처참한 기억을 전제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본 시가 선민다움을 절박하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노래를 새로 지어서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느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이어지는 2절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선민다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는 말

은 선민은 절대로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지, 지어진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로 인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에게 이것을 바라셔서 이방인들에게는 드러낸 적 없었던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창조주가 창조주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받지 못한 과학자들은 창조를 가설의 영역으로 끌어내립니다.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되었고, 인간은 아메바에서 시작되었다는 진화론을 말합니다. 허망한 상상속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민에게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도 피조물의 하나일 뿐이고, 자녀도 애인도 권력도 피조세계에 속한 것들입니다.

선민은 하나님께서 대통령이나 왕이 될 권력을 주셔도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는 출세가도를 달려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피조물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선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심을 통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도록 요청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을 죽여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셨음을 알면서도 세상의 가치인 돈 건강 무병장수 형통 승진 월급 명예 권력 등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은총을 죽여 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2절 하반부를 보면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2절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지으신 이 즉 창조주'라고 하였고 하반부에서는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기쁨의 대상을 말하였고 뒤에서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의 창조주는 가치관을 뜻하고, 뒤에서의 왕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주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해 나의 삶에 대해 죽는 것이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주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못하는 주체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체성은 오직 번제단에서 죽이기 위한 것으로 사용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주체적으로 주체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대해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선민입니다.

'왕'은 곧 판단하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삶에 대해 호불호를 판단한다면 나의 삶에 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상황이 나쁠 때에는 개선해야 되겠다고 여기고, 처지가 좋을 때에는 더욱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반대로 선민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성전이라는 은총을 허락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똑같이 되어서 이 은총적 효과를 죽이고 스스로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주체로 남아있고 주체로 유지되면서 이방인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의 나타나는 일이 4절과 5절에서 나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는 원문을 직역하면 억눌린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억눌림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피어나게끔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을 죽이고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5절에 "성도들은 영광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돈이 보입니다. 돈이 보이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 중에서 돈이 특별히 조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돈이 영광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광중에 즐거워한다'라는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속에서는 돈이든 자녀든 세상의 가치들이 영광이 되어 있고 그로부터 즐거움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이방인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영광으로 삼아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라는 말은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선민이 선민다웠을 때의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6~9절은 선민답지 못했기 때문에 겪었던 기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민답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었던 일들이지만 선민다울 때에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6~8절을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 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남 왕국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는 선민답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중에서 기쁨을 찾고 말았습니다. 풍요와 다산과 부유함과 부흥에서 기쁨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써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였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할 때에 시드기야 왕은 눈앞에서 아들들이 참수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도 뽑혔습니다. 멀쩡한 눈으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들들

의 참수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을 각인시키고 눈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놋으로 만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모든 귀족들도 쇠고랑에 묶여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이 선민이 선민답지 못했을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억을 바탕으로 선민다움이 어떻게 되는지를 드러냅니다. 세상의 가치인 돈 건강 형통 성공 애인 등으로 기뻐하려는 이방인들 앞에서 선민이 하나님으로 기뻐함을 통해서 그들의 당연한 삶이 죄악으로 돌출되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민이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세상으로 기뻐한다면 이방인들의 죄는 가려집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하나님으로 기뻐함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세상의 가치로 기뻐하는 것이 죄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라고는 어느 것 하나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세상가치를 추구하는 이방인의 삶이 죄였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날 가진 칼'은 곧 심판이고 죄를 드러냅니다. 자신들이 선민답지 못했을 때에 겪었던 일을 거꾸로 이방인들에게 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두 가지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다가 눈이 뽑히고 쇠고랑에 결박당해 지옥의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위해 내 주체성을 번제단에서 죽여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통해 하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민이 선민다울 때에 이러한 제시를 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시인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 시편 전체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0편은 오늘 말씀처럼 심도 있는 호소를 담고 있지 않고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반복하여 촉구합니다.

오늘 시의 주제는 제발 선민답게 살자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피조세계에서 기쁨거리를 찾지 말 것이며, 창조주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구하고 소원하지 말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하나님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나의 주체성을 번제단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체가 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민이 선민다울 때에,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승진을 추구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민은 그것들이 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칼을 든다.'라는 것은 위협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선민다움을 통해

서 일깨워주자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만이 죄악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에서 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선민이 선민다울 때에 이루어집니다. 죄가 드러나야 칼날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살면 칼날에 죽임을 당하듯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가능성 앞에 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시는 교회사 속에서 오해되어 사용되어 온 것처럼 결코 보복을 위한 시가 아닙니다. 선민의 존재를 통해서 일상 속에 숨은 죄악을 일깨우는 시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민다움을 통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민들을 찾아내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곧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시는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피조물로 기뻐하려는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피조물로 기쁨을 얻고자하는 나의 주체성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민다움을 통하여 세상에서 가려져있는 일상의 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참 선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